

tbs라디오 「서울속으로 황원찬입니다」 서울옛보기 (목) 11:15~11:25

서울통계로 보는 오늘의 숫자

I·SEOUL·U  
서울통계  
SEOUL STATISTICS

#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소득 및 소비생활은?

2018. 03. 08(목)

정 보 기 획 관  
(통계데이터담당관)

##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소득 및 소비생활은?

### ○ 1년 전과 비교 가구소득 증가, 가구부채 감소했다고 생각

- 서울의 19세 이상 가구주는 1년 전과 비교할 때 22.0%는 가구소득이 증가했다고 생각하며 이는 2년전(2015년)보다 4.1%p 증가한 것이고, 가구부채가 감소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2.5%로 이는 2년전(2015년)보다 2.3%p 증가한 것임

#### 〈가구소득과 가구부채 변화〉

(단위 : %, %p)

	가구소득				가구부채			
	계	증가	동일	감소	계	증가	동일	감소
2015년	100.0	17.9	58.0	24.1	100.0	23.0	66.8	10.2
2017년	100.0	22.0	53.6	24.3	100.0	23.3	64.2	12.5
증감		4.1	-4.4	0.2		0.3	-2.6	2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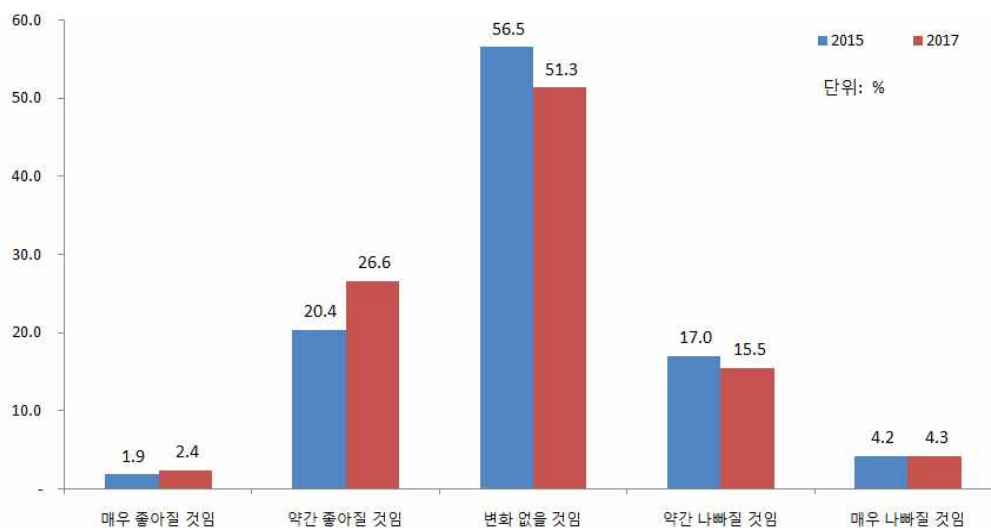
주 : 1년전과 비교하여, 19세이상 가구주

증가(크게 증가+약간 증가), 감소(약간 감소+크게 감소)

### ○ 내년 가구의 재정상태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 증가

- 19세 이상 서울의 가구주는 내년 가구의 재정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9.0%로 이는 2년전(2015년)보다 6.7%p 증가한 것이며,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년전보다 1.4% 감소함

#### 〈내년 가구의 재정상태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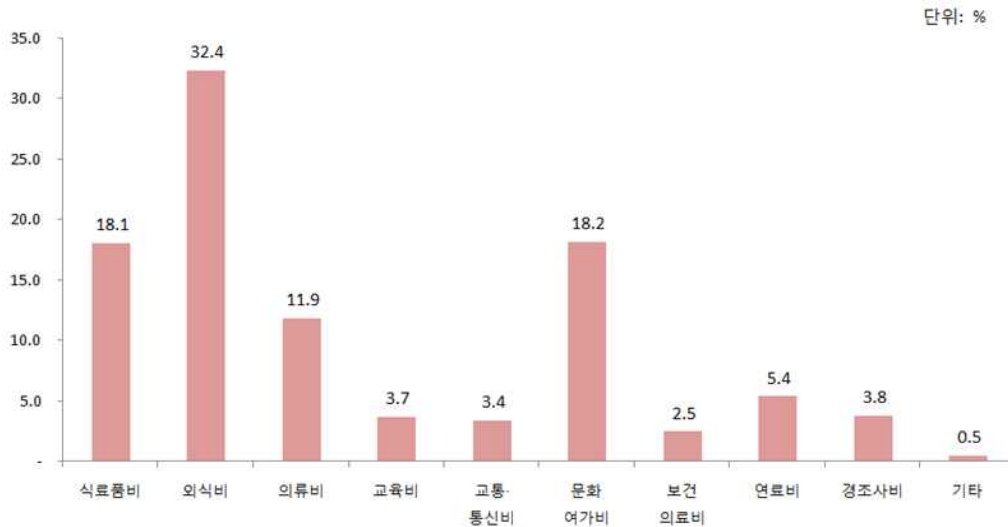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, %p)

	매우 좋아질 것임	약간 좋아질 것임	변화 없을 것임	약간 나빠질 것임	매우 나빠질 것임
2015년	1.9	20.4	56.5	17.0	4.2
2017년	2.4	26.6	51.3	15.5	4.3
증감	0.5	6.2	-5.2	-1.5	0.1

○ **긴축재정 시 소비지출은 외식비, 문화여가비, 식료품비 순으로 줄어**

- 서울의 19세 이상 가구 중 재정상황이 악화된다면, 제일 우선적으로 줄일 항목으로 '외식비'라고 응답한 사람이 32.4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'문화여가비' 18.2%, '식료품비' 18.1% 순으로 나타남

〈긴축재정 시 소비지출 항목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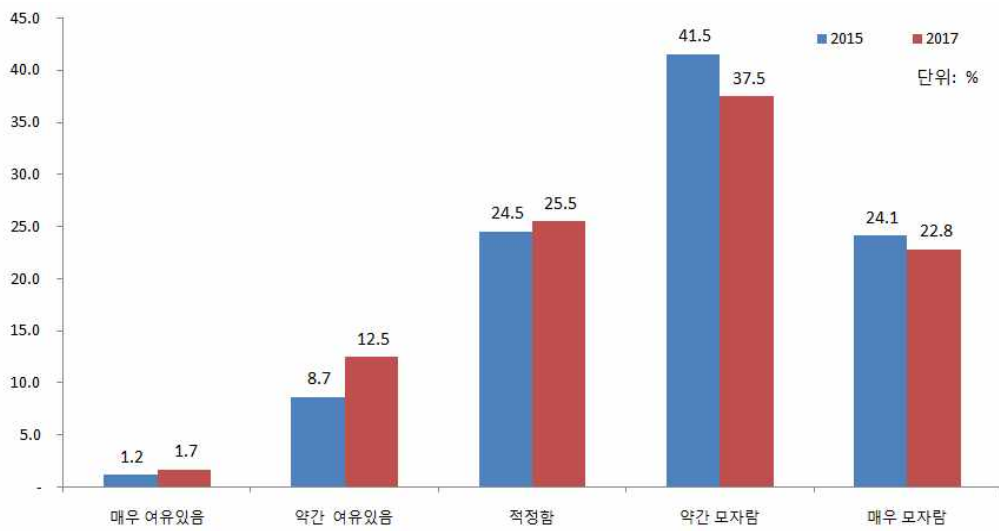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	식료품비	외식비	의류비	교육비	교통·통신비	문화여가비	보건의료비	연료비	경조사비	기타
2017년	18.1	32.4	11.9	3.7	3.4	18.2	2.5	5.4	3.8	0.5

○ **실제소득, 필요한 월평균 최소금액보다 모자란다고 생각 60.3%**

- 서울시 19세이상 가구주 중 가구의 생활에 필요한 월평균 최소금액과 비교하여 실제소득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0.3%로 나타남
-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4.2%로 이는 2년전(2015년)보다 4.3%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### 〈주관적 소득수준〉



(단위 : %, %p)

	매우 여유있음	약간 여유있음	적정함	약간 모자람	매우 모자람
2015년	1.2	8.7	24.5	41.5	24.1
2017년	1.7	12.5	25.5	37.5	22.8
증감	0.5	3.8	1.0	-4.0	-1.3

### ○ 현재의 소비생활만족도 45.3% 보통이라고 생각

- 19세이상 인구 중 의식주,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‘보통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5.3%로 이는 2년전(2015년)보다 1.1%p 증가한 것임
- ‘만족한다(매우만족+약간만족)’는 응답도 2년전(2015년)에 비해 2.3%p 증가했으며, ‘불만족하다(약간불만족+매우불만족)’고 생각하는 사람은 2년전(2015년)보다 3.4%p 감소함

### 〈현재의 소비생활 만족도〉

(단위 : %, %p)

	매우 만족	약간 만족	보통	약간 불만족	매우 불만족
2015년	2.6	13.4	44.2	28.8	11.0
2017년	3.2	15.1	45.3	25.7	10.7
증감	0.6	1.7	1.1	-3.1	-0.3

※ 자료출처 : 통계청 「사회조사」